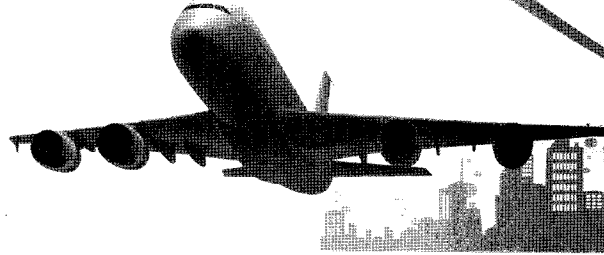


2010년 ITU 이사회

김기제 | 방송통신위원회 국제기구과 ITU/APT 담당
박종봉 | TTA 표준화본부 표준총괄팀 팀장



1. 머리말

지난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2010년도 ITU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이사회는 2010년 ITU 전권회의를 앞두는 이사회로서 전차전권회의 이후 4년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중요회의로 400여 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제네바 대표부를 비롯하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KOR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다수 위촉 전문가가 국가대표로 참석했다.

이사회는 헌장(Constitution) 제10조와 협약(Convention) 제4조에 의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두 전권회의의 사이에 ITU의 전반적인 관리와 행정을 감독
- 새로운 전략계획 초안 준비하고, 사무총국 및 각 부문의 운영계획(operational plan) 채택
- ITU의 인사규칙과 재정규칙 및 필요한 그 밖의 규칙

을 승인하고 개정

- 사무총국 및 각 부문 국의 주요 조직 변경에 관한 제안 결정
- 직급 및 직제를 포함한 ITU 직원 채용에 대한 지침 제시
- ITU의 2년 단위 예산을 심의·승인
- ITU의 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 일정을 조정
- 헌장, 협약, 업무규칙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ITU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조치

본 고에서는 금번 이사회의 주요 이슈 중 표준화와 관련된 ITU 마크, 국제전기통신규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주요 결과

2.1 적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시험

(구, ITU 마크 프로그램)¹⁾

1) WTSA 결의 76 :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능한 미래 ITU 마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ITU 마크 프로그램은 ITU 권고에 준하여 구현된 제품 및 서비스에 ITU 마크를 부여하는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동 사항은 자체의 시험인증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자국 내 통신 시장에 외산 장비를 조달할 경우 ITU 마크가 적합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개도국의 믿음과 신규 수입원과 인지도 향상이라는 ITU의 이해가 일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표준과의 적합성만으로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경험과 자국 내 산업체의 시험인증 관련 추가 경비 발생가능성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해 왔었다.

표준화국은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A) 이후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합성평가는 개별 국가 내의 규제적인 이슈와 연계된 것이며 시험인증기관의 인정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 지속적인 관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ITU 마크 프로그램이 아닌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ITU의 DB에 등록하는 우회적인 형식으로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다.

금번 이사회에서도 WTSA 결의 76 이행을 위해 사전 연구를 통한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개도국 및 ITU 사무국 간의 의견이 여전히 대립되었다. 한국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0년에 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를 통한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도국의 실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상호운용성 시험 개최를 통한 경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공동기고문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캐나다는 CTO 회의 개최를 주장한데 반해 이집트 등 개도국은 2009년 이사회가 승인한 실행계획의 단계적 추진이 아닌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이에 금번 이사회는 표준화국을 통하여 워크숍, CTO 회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2.2 2012년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 개최 준비

금번 이사회에서는 2012년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일정 및 의제 초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개최일정은 WTSA-12와 연계하여 개최(2012년 10월 5일~30일 중, 5~10일간)²⁾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WRC 등 다른 컨퍼런스 준비회의와 유사한 지역 준비회의를 갖기 위하여 TSBR로 하여금 세계전기통신 표준총회 준비회의와 연계하여 개최기로 하였다. 그러나 WCIT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논의 시 포괄범위에 대하여 미국, 호주 등은 WCIT-12는 현재의 ITR 규정에 한정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러시아, 터키, 아프리카 지역 등은 신규 요금 및 정산 이슈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등 입장대립이 여전하다.

금번 이사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WCIT 준비 작업반(CWG-WCIT)에서는 양자 간의 입장대립이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작업반 의장인 러시아는 개도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다소 편향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 영국 등은 의견을 같이 하는 회원국과 동조하여 더 이상의 회의를 거부하고 회의를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전향적인 회의진행으로 동 사건이 발발하지 않았으나, WCIT 개최 및 ITR 개정에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2) 2010년 이사회는 WCIT 회의 기간이 5일을 선호함을 의사록에 남김.

2.3 ITU 출판물에 대한 온라인상 무료 접근

표준화부문(ITU-T)의 발제로 시작된 ITU 권고의 온라인상 무료 접근은 2009년 이사회의 결정으로 ITU-R 권고 및 기본문서(현장, 협약, 전파규칙 등)에까지 무료 접근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동 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한 금번 이사회에서는 ITU 출판물의 무료 이용에는 이사국 모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ITU 재정 건전성, ITU 회원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자료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보다 구체적인 출판물에 대한 무료 접근을 금년 6월 재정규칙위원회(FINREG)와 차기 전권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3. 맺음말

금번 이사회는 전권회의를 앞둔 이사회인 만큼 정책 이슈에 대한 보고 및 토의와 더불어 많은 선거 후보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었다. 임기를 마감하는 무선통신국(BR) 국장에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이 후보를 배출했으며 심지어 연임 가능성이 있는 전기통신개발국(BDT) 국장에 현임인 사우디아라비아, 브루키나파소, 그리고 금번 전권회의 개최국인 멕시코가 입후보했다. 한국은 이사국 6선과 2014년 전권회의 개최국에 입후보했음을 이사회 참가국 전원이 초청된 오찬을 통해 선포했다. 차기 이사회는 2010년 10월에 전권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동 이사회는 전권회의 이전 최종 이사회로서 관련 보고서를 최종 검토될 예정이다. **TTA**

정보통신용어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녹색법 [관리운용]

법률 제9931호(2010년 1월 13일)로 제정/공포/시행된 법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